

웬만해선 바람의 라이더를 막을 수 없다

기

역하는가. 11년 전 여름, 검은 가죽잠바를 입고 손가락 휘두름 하나로 대한민국 여성들의 가슴에 불꽃을 지핀 오토바이 탄 왕자님 차인표를, 여기, 차인표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마케팅실의 핵심 브레인 김진문 실장이 있다. 그에게 은광에 번쩍번쩍 빛나는 잘 빠진 모터사이클은 작업용 백마가 아닌 취미고 문화이자 생활의 일부다.

8년 전 어느 아침, 구리시에서 서울로 출근을 하던 그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답답한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차들의 행렬. 그때 옆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오토바이 한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평소 종목을 가리지 않고 운동을 좋아하던 그는 그 순간 출퇴근 자가용으로 이륜차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스쿠터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업그레이드를 해왔고 3년 전에 모터사이클계의 제왕 할리 데이비슨을 '애마'로 입양했다.

모터사이클 애찬론자 김진문 실장은 타는 것, 그 자체가 재미있다고 말한다.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에 늦지 않게 도착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외근을 나가도 레저를 즐기는 기분이다. 업무 차 지방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여행 가는 기분으로 한산한 국도를 달리다 보면 사는 것 자체에 마냥 희열을 느낀다 하니 그에게 모터사이클은 기특한 삶의 동반자에 다름 아니다.

아내에게는 장장 5년을 속였다. 이륜차는 위험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잘 알고 있던 까닭이다. 하지만 이륜차가 사람들의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운전 중 통화, 흡연, 잤담 등이 다반사인 승용차 운전과는 달리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차들에 비해 사고율이 낮다고 역설한다. 평소 술을 즐기는 그이지만 모터사이클을 데리 운전엔 맡길 수도 없는 노릇.

“음주 후에는 근처에 애마를 두고 귀가할 때도 있지만 상황이 여의찮으면 전용용달을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난감한 것은 그 무거운 녀석을 용달에 올렸다가 또 다시 내리노라면 어느새 술이 다 깨버린다는 사

실이죠.”

할리 데이비슨 카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주말마다 모이는 번개투어나 정기투어로 사람들과의 모임을 갖곤 한다. 검은 가죽잠바를 입은 그들이 투어 도중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가 ‘여기 콜라 10병이요~’ 하고 주문하면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 일쑤라고.

자연을 벗 삼아 속도보다 풍경을 음미하며 다닌다는 김진문 실장은 여름에는 뜨거운 난로(엔진)를 안은 듯 땀범벅이 되고 겨울에는 아무리 중무장을 해도 추위는 어쩔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렇지만 어느 날씨 좋은 날 장중한 엔진음을 음악 삼아 바람을 가르는 희열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고 단호하게 못 박는다. 그리하여 할리 데이비슨과 함께하는 그의 유니크한 삶에는 특 특 튀는 멋과 꿈쩍할 수 없는 재미가 있다.

